

기획

인권도시 광주 이렇게 만들자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통해 본 선진도시 사례 (9)

국내의 인권도시와 기구, 단체 등이 참가하는 '2012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16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광주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포럼에는 네팔의 카트만두, 캐나다 몬트리올, 캄보디아 프놈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국 방콕 등 국내외 인권도시 42개 도시 67명과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유네스코 등 4개 국제기구 5명, 국제앰네스티 등 NGO 6개 단체 11명 등 5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초청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적인 인권도시의 제도 및 장치 등이 소개됐다. 학술 회의에서 소개된 선진 인권도시의 사례를 소개한다.



16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2012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국내외의 주요 인권활동가와 관계자들이 기조연설을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獨 뉘른베르크 차별대우금지 담당관 두고 분쟁 해결

캐나다 몬트리올 '도시권리 헌장' 제정... 나이·성·인종·경제력 차별 땀 행정조치

◇독일 뉘른베르크 인권정책·시스템

독일 뉘른베르크시는 보편적 인권을 도시 정책의 기본틀로 채택하고, 교육·문화·주택 부문·노동 시장 등 시민 생활과 직업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뉘른베르크시의 정책 중 눈에 띄는 것은 차별대우금지 활동이다. 유럽이 인종 문제, 집단 괴롭힘, 차별대우로 인한 폭력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뉘른베르크시는 차별대우 금지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뉘른베르크시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차별대우금지 담당관을 만들어 차별대우의 영향을 받는 시민을 돕고, 시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별대우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담당관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독립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1년 동안 약 180명의 시민들이 차별대우금지 담당관 사무실을 통

해 차별대우를 해결했다. 따라서 뉘른베르크시 차별대우금지 담당관실은 민족·사회·문화 등 서로 다른 삶의 영역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도시 내 분쟁 해결과 평화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시민들에게 받고 있다.

뉘른베르크시는 또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시는 공공안전 담당관실과 공조해 모든 업무분야의 차별대우금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뉘른베르크 시내에서는 그 누구도 출신 민족 또는 다른 차별적 이유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규정에는 누구도 술집·식당·야이트 클럽·헬스클럽 등의 입장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부동산 부문의 행동강령도 제시하고 있다.

시내 주요 부동산 기업들이 서명한 공약으로, 모든 임차인·구매자·주거지를 찾는

사람들을 관용 및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편견이나 차별대우 없이 공평하게 대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한 것이다.

뉘른베르크시는 또 2010년부터 격년으로 '차별대우 없는 뉘른베르크 기업문화상'을 제정해 수상하고 있다. 기업이 직원의 존엄과 권리 보호에 헌신하고 법적 규범에 규정된 범위를 뛰어넘어 인종주의와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활동을 통해 시의 발전에 기여한 지역기업에 수상하고 있다.

이밖에 뉘른베르크시는 시 고위급 실무진이 모든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업무를 맡도록 해 책임을 강화했고, 인권활동의 실무 영역을 확대해 난민의 생활환경과 교육 및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인권교육과 인권활동 네트워킹도 뉘른베르크시의 강점으로 꼽힌다.

뉘른베르크의 목표는 학교 안팎을 비롯한 공공기관, 기업 등 많은 교육단체에서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시청 수습직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켰다. 또한, 성공적 인권활동을 위해 상호 지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차별대

우·인종차별·극우주의 타파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지방과 지역, 국제 차원의 도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 행정감찰관 정책

몬트리올시는 도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느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옴부즈맨(행정감찰관)을 임명해 시민의 도시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 행정감찰관제도는 2002년 법률로 제정됐고, 2006년에는 몬트리올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도시권리 헌장도 도입했다. 행정감찰관은 중립적·독립적, 비정치적으로 완전한 자율권 권한을 갖고 시민 도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의 도시권 보호를 위해 시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등 질 높은 도시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몬트리올시는 또 도시권리 헌장(MCRR)에 따라 여성과 남성 간 양성평등 제도, 차별 및 외국인 혐오증, 나이 성, 인종 및 경제력으로 인한 차별과 빈곤에 대한 행정조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6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2 세계인권도시 포럼' 개최식에서 강운대 광주시장이 참석자를 앞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빌딩매매, 상무지구 건물매매, 평등공단 부지매매, 첨단산단 공장매매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금주의 추천 물건, 유동화 자산매각, 근린시설/원룸,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공장/토지, 김중원이사

대인동삼일부동산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토지매매, 상무지구 준주거지 분양